

‘컴알못’을 위한 컴퓨터 부품 가이드

③HDD/SSD와 파워서플라이

‘HDD/SSD’



HDD, SSD는 모두 저장공간의 부류 중 하나다.

운영체제(맥 OS, 윈도우즈, 리눅스 등), 사진, 동영상, 게임, 프로그램 등이 저장되는 부품이다.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를 메인보드를 통해 이것에 저장돼있는 정보를 읽어 들여 작업을 수행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HDD(하드디스크)와 SSD 모두 성능과 가격에서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역할을 동일하다. HDD는 데이터가 CD처럼 아날로그적 쓰이고 읽혀져 속도가 느리다. 이에 반해 메모리처럼 디지털적으로 쓰여져 하드디스크의 10배 넘는 속도를 낸다. 하지만 가격도 그만큼 비싸니 용도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HDD는 현재 매우 큰 저장공간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추세다. SSD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가격도 낮아져 보급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일반 소비자라면 자신이 필요한 정도의 저장공간을 고려해서 구성하면 될 것이다. 사무용은 일반적으로 128GB 혹은 256GB, 무거운 게임이나 작업등을 주로 한다면 512GB 이상이 합리적이다.



‘파워서플라이’ (줄여서 파워)는 말 그대로 컴퓨터 부품들에게 힘을 공급해주는 전원공급장치이다. 사람의 심장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파워는 각 부품에 필요한 전류량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파워가 컴퓨터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램과 비슷한데, 충분하면 매

우 안정적(블루스크린이 뜨지 않고, 컴퓨터가 잠깐 멈추지 않음)으로 구동되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부족할 경우 아예 컴퓨터가 구동되지 않거나 잦게 꺼지거나 블루스크린이 뜨는 경우가 잦다. 파워를 고를 때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각 부품들의 전류량의 합이다. 전류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CPU나 GPU(그래픽카드)가 고사양일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높은 전류량을 갖고 있는 파워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내장그래픽을 사용한 PC를 구성할 계획이라면 정격 300W 이상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PC

컴퓨터 부품은 알면 알수록 복잡해진다. 만약 ‘조립식 PC’를 만들려고 한다면 데스크탑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고 시도하는 것을 추천한다. 컴퓨터의 한 부품의 성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해도 그것의 역할을 100% 다 한다고 보긴 어렵다. 컴퓨터는 ‘한 부품의 성능’보다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더 중요하다. 그래픽카드만 매우 좋은 것을 쓰고 CPU를 안 좋은 것을 쓴다면 일명 ‘병목 현상(Bottleneck Effect)’이 발생한다. 또 구매한 그래픽카드의 100% 성능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 예산을 고려해 한 부품의 압도적 성능을 포기하더라도 전체적인 조화를 맞추자.

또한 컴퓨터 부품 시장은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처럼 비쌀수록 성능은 급속도로 올라간다. 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품의 값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면 아주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사는 것 보다는 적당한 컴퓨터에 오래 쓸 수 있는 주변기기(마우스, 키보드, 스피커, 헤드셋 등)를 구입하기를 권한다.

(12)

한민족의 후예, 이국땅의 록음악 선구자

최건·빅토르 최

중국과 러시아 록음악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상황아래 성장했다. 이를 이끈 가수들도 공통점이 하나 있다. 모두 한국계 이주민들의 후손이라는 점이다. 혼란스러운 시대, 중국과 러시아의 청년들을 대변해 각국 음악사에 한 획을 그은 두 가수를 소개한다.

(崔健)



1970년 중반 문화혁명의 끝과 개혁개방의 시작으로 서양음악이 중국음악 시장에 소개됐다. 록음악도 이 추세를 타고 서

서히 중국 대중에 노출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출현한 가수가 최건이다. 중국 록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최건은 1961년 베이징에서 태어났다. 그는 조선족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트럼펫 연주자였고 어머니는 한국전통무용수였다. 그도 아버지처럼 트럼펫 연주자가 되어 스무 살 때 베이징 교향악단에 입단했다. 그러나 이시기에 친구가 홍콩과 방콕에서 밀수입해온 음반으로 처음 록음악을 접한 후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다. 최건은 1984년 그의 첫 밴드 ‘치허반(七合板)’을 결성해 가수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최건은 1986년 발표한 노래 일무소유(一无所有)를 통해 중국에서 스타 반열에 올랐다. 제목은 ‘내가 가진 건 하나도 없다’는 뜻으로, 당시 개혁개방과 자본주의 경제의 도입으로 격동을 보낸 중국 청년들의 허무감과 고뇌를 표현했다. 빠른 경제변화와 극대화되는 빈부격차로 인해 정부의 새로운 방침을 향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중국 청년들에게 큰 공감을 자아냈다. 이러한 공감대 덕분에 ‘일무소유’는 발매 즉시 성공적이었다. 인민일보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일무소유’에 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무소유 발매 이후 지속적인 인기를 끈 최건은 중국 외에도 미국과 유럽을 수 차례 순회

하며 국제적으로도 이름을 알렸다. 그는 1991년 로스앤젤레스에서 MTV 뮤직 어워드의 인터내셔널 뷰어스 초이스 상을 받았다. 그는 이듬해 골든 게이트 뷰어스 수상식에서 특별 언급을 받았다. 최건은 여전히 중국의 가장 영향력있는 록가수다.

소련의 1980대 음악시장을 휩쓴 빅토르 최는 1962년 교사인 우크라이나계 소련인 어머니와 엔지니어인 고려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고려인은 1860년부터 1945년 사이 조선후기와 일제강점기의 혼란을 피해 러시아 영토로 이주한 한민족을 일컫는다.



빅토르 최는 1981년 레닌그라드 록 클럽에서 데뷔했다. 이의 성공으로 독자적인 밴드 ‘키노(Кино)’를 결성했다. ‘키노’는 변화와 자유를 원하던 당시 소련 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정치적인 은유로 찬 노래로 큰 인기를 얻었다. 그의 대표곡 중 하나는 ‘혈액형(Gruppa Krovi)’으로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은유적으로 비판했다. 키노의 또다른 대표곡 ‘Khochu peremen(I Want Changes!)’의 발매는 소련의 정치 개혁 운동인 ‘페레스트로이카’와 시기가 맞물렸다. 키노의 음악은 소련이 청년들에게 주체성을 가지고 나라와 자신을 개척하라는 메시지를 담아 빅토르를 청년들의 우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밴드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불법 복제본과 정부의 문화 산업 통제로 인해 그는 레닌그라드 아파트 보일러실에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며 궁핍한 삶을 살았다.

빅토르는 1990년 8월 15일 자동차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를 추모하기 위해 모스크바의 아르바트 거리에 ‘조이 벽(Стена Любя)’이 만들어져 오늘날까지도 팬들의 성지로 여겨진다. 거리 곳곳에 그려진 그의 초상화는 지금도 러시아 전역에서 볼 수 있다.

(SAS 11)



탑플러스 국경절 특강

“올바른 영어교육”



기간 2020. **10.1** (목) ~ **8** (목)
토요일 포함 7회

Class	대상	내용
GENES	G10~11	Reading Structure / Essay&SP Grammar / VOCA
SPES	G8~9	Reading Structure / Essay&SP Grammar / VOCA

중삭: 도시락 업체 선정

© Designed by 신규상 담지널디자인센터, 포인트

탑플러스(top plus)영어전문학원 · 신규상담 **131 6252 0512** *신규상담은 반드시 예약 후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